

‘미스트롯’ 중국 수출,
트로트도 한류되려나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이 트로트 한류비리를 노린다.

TV조선은 “미스트롯”, 중국판이 만들어진다며 “TV조선 예능을 최초로 중국에 판권을 판매했다. 기준의 지상파 예능을 판권 판매 금액과 동일한 대우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과의 판권 수출을 기점으로 다른 나라와도 계약 조건을 나서는 등 트로트의 한류 컨텐츠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미스트롯’은 송가인(33), 정미애(37), 홍자(33) 등 스타들을 배출하며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방송됐으며 마지막 10회는 시청률 18.1%(닐슨코리아 전국유료기준)를 기록하며 인기몰이했다. ‘미스트롯’, 전국 콘서트도 연일 티켓이 매진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판 ‘미스트롯’은 다음달부터 자원자 모집을 시작하며, 예선을 거쳐 10월 방송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주류 장르로 일컬어지는 중국 트로트계에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지, 또 중국판 ‘송가인’은 누가 될지는 기대가 모아진다.

BTS Sirasity and the record of their home country of South Korea

By Connie Suggitt | Published 25 June 2019



기네스 월드 레코드 캡처

Related Articles



Record Store Day: As artists like Madonna and David Bowie release exclusive vinyls we share their world records



▶쥐띠
사방에 이것저것 사업을 벌여 놓았으나 소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가까이서 일던 사람이 기만할 우려도 있으니 ㄴ, ㅊ, ㅍ성씨는 매사 조심함이 당신에게 이롭다. 예정을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라.



▶소띠
예기치 않던 걱정거리가 생길까 염려되니 조심성 있게 오늘을 보내라. 특히 재물이나 애정 문제로 구설이 있겠으니 매사 유의하는 것이 상책이다. ㅂ, ㅈ, ㅎ성씨 말 믿지 말 것. 1, 5, 9월생 언행으로 구설이 따를 수. 매사 조심함이 내일을 위한 길.



▶호랑이띠
가장의 화목이 사회 활동에도 활력소가 된다. 자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지친 자녀로 인해 나의 인기 관리나 사업에 손상이 올 듯. 5, 7, 11월생에게 실망 주면 안 된다. ㄱ, ㅁ, ㅊ성씨는 금물. 붉은색은 심갈 것.



▶토끼띠
상대가 강하게 대하여도 의연한 자세로 친절하게 처신함이 좋을 듯. 금장부터 앞세운다면 서로 간에 적이 될 수 있다. 1, 7, 9월생 애정에 장벽이 생기는 경이니 한숨뿐. 쥐, 토끼, 닭띠의 조언으로 사든 꽃이 물을 만나는 격. 서, 북쪽이 길.



▶용띠
천지 간에 금전으로 인한 원망이 우려되니 거래에 신용을 지켜야겠다. 직장인은 자존심을 너무 세우지 말고 상사의 뜻에 협력한다면 총애 받을 듯.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노리다가 ㄱ, ㅁ, ㅂ성씨는 운다. 북,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뱀띠
작은 일로 상대를 무시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 도움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여성은 내일을 위해서 덕을 쌓고 남을 존중해 주는 아량의 자세가 요구됨. 1, 3, 5월생 물지단 말고 마음을 정리할 때. ㅅ, ㅇ, ㅎ성씨가 힘이 된다.



▶말띠
친한 사람에게 결혼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약점을 이용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른 자와 함께 사업을 하면 수입도 없고 속만 썹는다. 기혼남자는 처가와 아내에게 신경 쓰고 관심을 보여라. 1, 5, 9월생 서두르지 마라. 손해 볼 듯.



▶양띠
고난의 장막이 걷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신의를 지키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한다면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 꽃 중의 꽃을 고르기란 힘들다. 낭정히 결정해야만 배필을 만난다. 1, 2, 3월생 검정색을 멀리하라. 녹색이 길.



▶원숭이띠
무리해서 힘에 거둔 계획을 세우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주어진 여건에서 실속 있게 처리함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할 때. 2, 5, 9월생 가정을 지켜라. 자식 걱정과 신병으로 고생 할 수. 투기는 금물.



▶닭띠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고달프다. 자제로 국복 가능하다. 너무 자나친 포부보다는 정도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 의류나 건축업 투자는 길하다. 3, 7, 9월생 자기 관리에 신경 쓸 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 뻗어온다.



▶개띠
많은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신경성 노이로제에 놓일 우려 있다.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자기 만의 시간을 갖는 게 현명하다. 이제 까지 생각 못했던 일에 곧 착수하라. 변신을 시도해 볼 만하다. 서, 북쪽이 길.



▶돼지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허리를 부리다가 큰 것을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 할 우려 있다. 매사 진행에 분수를 자김을 신조로 삼는다면 목표 달성을 누워서 벽역기다. 다만 ㄱ, ㅂ, ㅎ성씨는 남쪽에 있는 재물을 털하지 마라.

방탄소년단, 김건모 제쳤다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 339만9302장 판매

1995년 김건모 3집 ‘잘못된 만남’ 330만장

24년만에 기록 경신…음원 시대 새 역사 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국내 음반 판매량의 새 역사를 썼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기네스 월드레코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4월 13일 발매한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판매량은 339만9302장으로 집계됐다.

이전 한국 최고 음반 판매량 기록은 1995년 가수 김건모(51)의 정규 3집 ‘잘못된 만남’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 앨범은 330만장이 팔렸다.

방탄소년단은 24년 만에 최다 음반 판매량을 갈아 치우며 또 하나의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이 많게는 수만장, 팬덤을 보유한 그룹이 수십만장을 팔아치우는 것과 비교하면 독보적이다.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는 한국 앨범 차트뿐 아니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 영국의 오피셜 앨범 차트 1위 등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앨범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보이 워드 러브) 뮤직비디오로 이미 기네스에서 3개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K팝 그룹 중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방탄소년단은 ‘이미’라는 거대한 팬층 덕에 트위터 참여(평균 리트윗 수)와 같은 소셜 미디어 레코드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노 “나는 이래서 16년 전 한국 떠났다”

SBSTV 예능 ‘불타는 청춘’ 서 이유 밝혀…배신·가짜 계약 등

이탈리아인 브루노 브루니 주니어(41)가 16년 전 한국을 떠난 이유를 밝혔다.

브루노는 25일 SBS TV 예능물 ‘불타는 청춘’에서 ‘한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생겼더라. 많이 밀진 것 같다’며 “보행과 같이 여행한 느낌이 든다. 경치가 정말 아름답고 기분이 좋다. 걱정 없었던 편었을 때가 생각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2008년 한국을 떠났다면 “안 좋은 사람을 만났고 배신도 당했다. 소속사를 나가게 됐는데 계약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땐 어려서 다 밀었다. 한국어를 잘하긴 했어도 계약서 내용은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나쁜 소속사로 옮겼는

데, 비자 문제가 발생했다. 조금 안 좋게 한국을 떠나게 됐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브루노는 “이제 다시 한국에 왔으니까 그런 일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기금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도 한국에 정이 안 떨어졌다. 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한국에 오지 못했던 것 같다. 상처가 나아야 한국에 다시 갈 수 있겠다 싶었다”고 고백했다.

브루노는 1990년대 큰 사랑을 받은 1세대 외국인 MC다. 중국 유학생 보행(43)과 함께 1999년 KBS 2TV ‘남희석 이휘재의 한국’이 보인다. 외국인 도보체험! 한국 대장



정에 출연, 인기를 끌었다. 보행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

